

* 팀NO : 2018-28

2017 단기선교팀 신청서 (/)

선교위원회 확인

1. 신청부서 : / 교구3 팀 / 교회학교 (중1, 2, 3, 고, 대, 청1) *항공원구매: (자율, 교회)

2. 선교지 : 몰도바 (2팀) (공항 :)

3. 사역기간 : 2018 년 8 월 3 일 (수) ~ 8 월 11 일 (토) / (8)박(9)일

담당

분과장

위원장

이성민 5/13

김영환

이성민 5/13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한집	강남석 KANG NAM SEOK	1		91-1020		남			
2	총무	천사	홍정호 HongJung Ho	15		89-1542		여			
3	서기	집사	정종원 Jeong Jong Won	15		96-303		여			
4	회계	천사	김영희 Kim Young HUI	15		88-747		여			
5	의료	집사	이기현 LEE KIHYUN	1		2011-0090		남			
6	초양육		이은미 LEE EUNMI	청년		89-596		여			
7		천사	염기자 YEOUN. KI JA	7		88-959		여			
8		집사	김혜영 KIM HYE YOUNG	15		2008-0076		여			
9			김예진 KIM YAEJIN	13		96-64		여			
10			김한울 KIM HAN WOOL	14		93-694		여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2차심사후 3차심사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윤선환

김기영

사역소감문

팀명: 몰도바2팀

팀장: 강남석

기간: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성명: 강남석

처음으로 선교에 나서는 두분의 남,녀 집사님들이 포함된 몰도바2팀은 8월3일 오후 10시35분 이스탄불항 비행기에 몸을 실고 15시간의 비행과 대기 시간을 거친 후 드디어 8월4일 오전 9시 35분에 몰도바에 도착 하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드린 지역이라 무척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사역지도착 예배와 현지 교회 청소년 캠프 초청을 위해 교회 주변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믿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스 정교가 95%이상인 몰도바에게는 우리가 이단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으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노방전도, 축호 전도, 버스터미널에서 찬양과 전도에 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정교 특성상 그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가 없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는 정교의 사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모 마리아에게 비용과 함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몰도바가 유럽에서 최빈국이라 많은 이단들이 이곳에 찾아와 물질적인 도움을 통하여 그들을 사악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찬양 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몰도바 사람들.
K pop이라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몰도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거냐고 물어보면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하는 순수한 젊은 몰도바 사람들.
정치적인 부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조국을 떠나야만 하는 순수한 몰도바 사람들.
이 젊고 순수한 몰도바 사람들에게 중단 없는 선교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져서 다시 한번 이 몰도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와 같은 동유럽 전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몰도바는 특별히 스테반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그레이스 언약 교회는 매우 귀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우리 모든 팀원들의 하나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이 이 몰도바 땅에 부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역소감문

팀 명 : 몰도바2팀

팀 장 : 강남석 팀장님

기 간 :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작성자 : 홍정호

‘주님 감사합니다!’

늘 선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주님의 손길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은 선교에 대한 나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 시키셨다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

이번 선교는 세 세대를 아우르는 팀원들이 모였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청년부 자매들

처음 시작은 조금 염려가 되었지만 팀훈련 시작부터 조금씩 다가가려는 조심스런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오히려 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것 또한 나의 생각인 것을 회개케 하셨다

매력있고 배려심 깊고 어른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미소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애교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청년부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다음세대를 보게 하셨고 그 속에서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

몰도바는 그리스도정교가 90프로 이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평온한 듯 하지만 ...

그속에서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엔 구원 받을 길이 없다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전했다

공원에서의 찬양과 길거리 ,터미널 등 많은 곳에서의 찬양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 속에 잠기게 하셨다

그런 중에 전도지를 꼼꼼히 읽으시며 영접기도를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심에 ~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열정 있는 전도모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섬기시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몰도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선교를 통해 그레이스 언약교회가 몰도바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소감문

팀명: 몰도바2팀

팀장: 강남석 팀장님

기간: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성명: 구영희

3개교구와 청년부자매와 함께한 이번 선교는 팀구성도 조편성도 나름 좋았다 각자 주께 받은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시어 무리없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한 것 같다

20대~60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연령대에도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 한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언약교회의 예배모습이 이려했다

팀원들의 감동의 눈물, 준비해간 무언극에서의 눈물은 한 성령 안에서 느끼는 감사의 눈물이리라

이 땅에 예수님의형상과 십자가가 길가에 세워져있고 정교회의 건물도

곳곳에 보이지만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전하는 중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세요" 라는 영접기도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젊은이에게

복음전도지에 붙여진 언약교회로 인도하시어 성경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냄새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노숙자같이 보이는 분을 보고 주저하는 나에게 거지 나사로와

하나님형상으로 지은 바 된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것을 감사하는 선교이다

스데반 목사님의 돌봄 속에 있는 자매가정교회 고아보호시설이 조속히 완공되어 상처받고 소외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보호와 사랑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여 주의 나라 확장시켜나가는 일꾼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 믿기로 작정했던 자매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사역소감문

팀명: 몰도바2팀

팀장: 강남석 팀장님

기간: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성명: 정종원

“하하... 제가 직장을 다녀서요...”
이런 저런 교회 일에 매번 직장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내게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선교 제안이 들어왔다. 몰도바... 나중에 선교지를 얘기하면 반수의 사람들은 “아이구 휴양지네?”라고 하며 몰디브를 떠올릴 정도로 몰도바는 모두에게 낯선 나라였고 나에게 역시 그러했다. 선교를 준비하며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로 유럽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어려운 나라라고 들으면서도 나에게 여전히 몰도바는 막연하고 먼 나라였다. 그러나 어려운 교회형편으로 한국에 사역비를 벌기 위해 잠시 와계셨던 스테판 목사님께 직접 언어를 배우면서 점차 몰도바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 나라와 그곳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길고 긴 비행시간을 견뎌 도착한 몰도바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처음 경험해보는 현지교회와의 협력 사역을 위해 먼저 <그레이스언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말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한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절로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또한 그들도 우리가 그 나라 말로 드리는 찬양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처음 방문해본 나는 내 기대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과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러시아 정교가 가득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정말 감사했고 이 교회와 몰도바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부터 준비했던 청년사역과 어린이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준비한 것을 전부 계획대로 풀어놓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의 계획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의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 팀원들이 하나되어 드린 찬양을 통해 몰도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런 찬양사역을 처음부터 계획하진 못했으나 열심히 준비한 결과 결국 이를 좋은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풍선으로 왕관이나 강아지를 만들어주면서도, 타투스티커에 물을 뿌리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전하려는 팀원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부족했다’ ‘더 잘해보자’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며 진지한 팀원들의 열심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미약하나마 몰도바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저 돌아왔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곳에 남아서 열심히 물을 주고 계실 스테판 목사님과 그 가정을 생각

하면... 인간적인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또 나의 믿음 없음과 내 생각이 앞섬을 발견하고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마음속에 '물도바'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말씀해주신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도 함께 품게 하신 물도바를 향한 마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려 한다. 중단 없는 물도바를 향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물도바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는, 믿는 자들이 누구나 알고, 누구나 칭찬하는 나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선 교 소 감 문

(첫선교)

몰도바 선교 2팀
팀장: 강 남 석 안수집사

작 성 자: 이 기 현
2018. 8. 15.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을 표어로 삼아 우리 몰도바 2팀은 밤을 지새워 서쪽 하늘로 달려 새벽을 깨우며 몰도바의 수도 키신나우에 도착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팀 구성부터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3개교구 연합(1, 7, 15교구)과 1개 부서(청년1부)로 구성 되었으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유머와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팀장님, 언제나 어머니와 같이 한 없이 자애롭고 이해심이 많으나 전도에는 엄격하신 영성 깊은 세 분의 권사님들, 공원, 터미널, 지방도시 개척지에서 찬양 사역 시 찬양대원으로서 우리의 은혜로운 화음을 이끌어내 몰도바 사람들의 마음 받을 축축이 적셔준 두 분의 집사님들 그리고 어린이 사역과 청년 대상 부흥회시 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 우리 총현의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 청년1부의 세 분 자매님들, 끝으로 아무런 쓰임 받을 것이 없을 것 같던 저와 같은 사람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준비부터 순탄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원활한 선교위원회의 심사 통과,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스테판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6회 정도의 언어 교육 등등이 있어 우리의 자신감과 의욕이 앞장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작렬하는 태양의 불볕더위와 이동시 복사열로 데워진 에어컨 없는 차량으로 노면 상태가 불규칙 곳을 이동하다 내려서 전도하는 몇 차례 과정에서 영적인 피곤함과 육체적인 무력감, 팀원 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 등이 노출되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있을 만한 자량과 교만이 여지없이 밖으로 드러나 사역에 훼방을 일으키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일차 아침 경건회 때 한 집사님의 눈물의 회개 기도와 회복의 간구가 있었고 통성으로 기도 할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화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집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초 주신 **주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우니 그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줄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어눌하지만 확신에 찬 ‘영접기도’ 따라 했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때로는 이단 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을 만나기도 하여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 번 선교 사역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겸손한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느 순간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단기 선교는 정작 다녀와서 비로소 시작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의 영혼 구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중보 기도**와 **중단 없는 새로운 단기 선교 팀**이 계속 파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일이 제 평생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역소감문(첫선교)

팀 명 : 몰도바2팀

팀 장 : 강남석 팀장님

기 간 :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작성자 : 김혜영

*선교의 시작

학업, 직장, 결혼, 육아 등 마흔 네 살이 될 때까지 선교를 가지 못할 나름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주일 설교 말씀 중 선교는 “지금 바로 가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어떠한 망설임도 고민도 없이 몰도바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첫발을 내디딘 것 또한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기에 선교 기간 내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참된 예배

몰도바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에 교회에서 준비된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언어공부를 하였고, 틈틈이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98%정교회와 2%의 기독교인들.

그들의 예배가 어떠한지 궁금하였습니다.

몰도바에 도착한 다음날, 스테반 선교사님의 목회지인 ‘그레이스 언약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풍기 하나 없는 전쟁기념관.

그러나 2시간의 예배시간동안 온몸으로 기뻐 찬양하고, 경건하게 설교를 들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들의 예배를 참여하면서 시종일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벅찬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이것이구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것이구나...

정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매일매일 오전, 오후 공원전도사역과 교회청소년사역, 자매교회사역 등 많은 계획들이 정해져 있었지만,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팀원들 모두 전략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먼저 찬양과 율동, 풍선아트, 타투 등으로 현지인들과 가벼운 교제를 나눈 후 3개조로

나뉘어져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몰도바 현지의 중장년층은 러시아어나 루마니아어를, 청소년들을 루마니아어나 영어 중 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명은 러시아어와 영어가 가능하였고, 나머지 팀원 대부분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였기에 암기해간 루마니아어를 활용해가며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던 저 또한 전혀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은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 내내 함께 상의하고 전도일정을 함께한 스데반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큰 딸 인가와 막내 미리엘라.

그들 가족 모두가 몰도바 영혼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보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들과 우리 팀이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하는데, 서로 얼마나 힘이 되고 신이 나는지.

*몰도바를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몰도바 사람들.

그러나 절망과 무기력에 열정을 잃은 사람들.

그러한 그 곳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레이스 언약 교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몰도바 영혼을 사랑하는 스데반 선교사님 가정이 있음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곳에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실 그 일에

저를 동참시켜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소감문

팀명: 몰도바2팀

팀장: 강남석 팀장님

기간: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2018년 8월 3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11일 토요일까지 몰도바 시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 떠나고 나서 함께 팀을 꾸렸을 때 시선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시간과도 많이 어려웠고, 혼자라도 아들에게 상처와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말하고 싶을지 걱정하며 조금은 예민하게 선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동되고, 영성 훈련과, 심사가 거듭 될 때 마다.
정년들을 생각하자고, 우애자들 마음을 보았고, 좀더 하느니라하기는
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진짜 팀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로를 배려해주는 팀원에게 감사했습니다.
팀에서 재능들이 총 3명이 있었는데 러시아어와 정년 시역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시선 사해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한 팀원이 계획을 세워주니,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정말이고, 의견 차이를 하거나 많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니, 정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계명을 잘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 감으로 채워주어 감사했습니다.
공원을 다녀와 농장으로도 하고, 풍선아를 하여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팀원들이 나란히 서서 찬양할 때 '주 하느님 자신 모든 사역' 찬양을
말씀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곳까지 마음을 전할 수 있게
감사했습니다.
아침시간을 통해 좀더 준비되고, 정년으로서 광복하며, 자선자, 신앙자들도 더 사랑되어서
주님에게서 쓰신 자 하느님 준비되어 사랑받을 수 있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있던 비에올린 영주 몰도바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요 자못하더가 진짜 선교를 믿고 주님께 보이다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랑까지

사역소감문_염기자

팀명: 몰도바 2팀

팀장: 강남석 팀장님

기간: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어두운 몰도바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 역지 10명의 팀원들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무장하여 나아갔다. 어린이와 청년사역, 언어 25문장, 울동 여섯 개를 준비하고 그레이스 언약교회 첫째 날, 교회 주변 탐방을 시작 하였다. 주변은 조용하였고 교회 안에서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성경하고 진행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와 평온한 마음이 우리 팀을 감동케 하였다.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자리에 있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찬양을 이끄는 자매의 기도에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흘렀다.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이 아닐까 또한 주변에는 공원이 많이 있는데 3개조로 구성 1조 목사님, 2조 사모님, 3조 목사님 딸이 동행하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저 사람 들은 고집 과 교만으로 인하여 참과 진실을 구분 할 줄 모르는 것이 마음이 답답하며 안타까웠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모두가 얘기한다.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간 25문장 언어는 정교인 청년들에게는 현장에서 별로 힘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몰도바 선교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을 갖게 한다. 지금은 어느 나라든 청년들이 영어를 유창 하게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세워서 저들에게 세심하게 다가가는 것이 정교 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어두운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과 울동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마음을 열고 모아서 1대1 전도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도 하며 돌아왔다. 저희를 보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역소감문

팀명: 몰도바2팀

팀장: 강남석 팀장님

기간: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몰도바는 매우 가난한 나라이다. 경수도 크지 않은 국가로, 인구 절반 이상이 해외에 나가 생계비를 번다. 심지어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서는 라디오 나가야 하거나 하더라. 수련과 바쁜 일상을 정리 자원봉사 23명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몰도바 사람들에게 대해 많은 고백이 전해져 되었다.

몰도바 사람들을 고백하는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2 차들이 마리아를 다들 상쾌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비록 형제로 하신게 기쁘다. 고백이 예배장이 아니. 많은 이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깊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해 보였다. 하루마리. 모리사람들이. 친원 귀국하신 해나를 몰도바 선교. 그분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 시간이었다.

우리의 사역은 세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작년에 워싱, 사모님 군단이 권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목사님, 집사, 자매회, 자녀회, 청년회를 병행했다.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자매회의 교로 진행되었고, 자매회는 꽤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인회 형제로 되어있다. 목사님이 먼 두 곳까지 방문해서 가뭄예배 형제로 예배는 드려서라고 했는데, 사역에 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아들을 권유하기 위해 풍선아트, 타악, 집사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덕분에 해나에게 라디오 더 해나로 권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 사역하는 중에 라디오를 이렇게 창안하는데, 내가 많이 해나를. 안에 해나를 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면서 이득이 해나를, 많이. 여기는 매우 생계 형편이다.

사역을 이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푸른 환경, 하늘 " 2 차정원으로 정한 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만드신, 작년도 연회 다니신 계신 분이 나의 해나, 어머니라는 사색에 감사했다. 권유가능하신 해나를 나의 어머니가 되셨고, 내 사역에 계신 계신 사역이. 더욱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몰도바 장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더욱 열심히 권유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몰도바 자매를 만나면. 다시 많이 몰도바 권유만. 이곳에서 계신 사역으로 작년 스페셜 목사님과 2 명이 계시고, 더 열심히 해나를 권유할 수 있게 더 많이 해야겠다.

팀명: 몰도바2팀

팀장: 강남석 팀장님

기간: 2018년 8월 3일(금)~8월 11일(토)

저는 청년 1부에서 몰도바 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얼마 전 주님의 말씀을 몰도바 땅에 뿌리고 돌아온 몰도바 2팀의 이은이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팀원들의 많은 배려로 큰 어려움 없이 여권이 프로그램과 전도 사역을 계획할 수 있었고, 선교를 향한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청년부에서의 사역과 같이 감당하다보니 사역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우리의 부족함이 큰 때문이 하나님께 기도로 더욱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했던 몰도바는 러시아정교가 98%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은 부인하는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다가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순수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사역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영혼들 중 "마리아" 라는 ~~사람~~가 생각에 남습니다. 강아를 우습게 낚은 눈으로 바라보던 이 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있었습니다. 저 그 여인에게 대기가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의 작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여인은 책자를 받고서 다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주셔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희생하게 하신 주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사역지에서 한주로 줄거울 각광, 그 여인과 그 땅에 많은 선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사역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자선 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와는 다르게 힘들지만 감내하는 다른 팀원들을 보며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겠다고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몰도바에서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